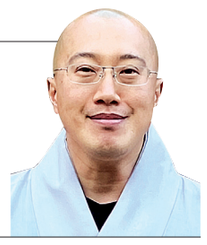
현불논단

오늘을 산다는 것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연초 갑상선암 판정 받고 수술대 올라
몸을 회복하며 살아있음에 감사드렸다
지금도 비구 법장으로 있음에 감사해

김주일 국장, 김성철 교수 등 지인들의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아…황망할 따름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즉시' 주련 글귀
사는 게 수행이고, 이를 아는 게 깨달음
오늘 하루, 어떤 날보다 소중함 알아야

시간은 또다시 정처 없이 흘러 어느덧 2023년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언제나 연말이 다가오면 시간의 흐름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지만, 한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올해는 필자에게 있어 여러 의미로 기억에 남은 한 해였다. 연초 갑작스런 갑상선암 판정으로 인해 삶에 대해 되돌아보고 깊은 사유와 고민을 갖는 시기였다. 20대에 출가해 30대에 유학을 하고 40대에 승가대학 교수사에 돼 게으르지 않고 신심 있게 지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아니겠지라는 망상은 '암'이라는 한 단어에 여실히 무너져 내려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갖게 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오른 수술대에서 두려움 가득히 눈을 감았고 다시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지금 이 찰나의 시간이 바로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됐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삶에 대한 감사함과 법장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인연들의 소중함을 간절히 느낀다.

올해는 이러한 개인적 일과 함께 안타깝게도 주변의 인연들이 갑작스레 생을 다하는 슬픈 일들이 많았다. 누구 한 명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 만나거나 통화하며 오히려 나의 안부를 묻던 분들이 헤어짐의 인사조차 나눌 겨를 없이 떠나가셨다. 5월쯤 승가의 선배이시며 항상 올곧은 수행을 보여주셨던 스님께서 갑작스레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후 얼마가 지나지 않아 현대불교신문의 김주일 국장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며칠 전 학회에서 인사를 나누었던 분의 슬픈 소식이었기에 다시금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떻게 이처럼 황망하게 떠나가실 수 있는지 두 번째 다가온 슬픈 소식은 '삶'이라는 한 단어가 얼마나 힘없고 나약한가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나는 그동안 나의 암수술이 잘돼 다행이라는 생각에 빠져 일상을 아무 일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이처럼 가까운 인연들의 소식에 그 가벼운 생각이 너무나 창피했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 이후로도 승가와 재가의 인연된 두 분이 더 세상을 떠나셨고, 며칠 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경주 동국대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던 김성철 교수님께서도 갑작스레 슬픈 소식을 전해오셨다. 작년에 학교를 은퇴하시고도 쉴 틈 없이 연구와 지도를 해주시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셨다는 소식은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이다.

수술 이후 생각했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 자신과 인연된 분들에 의해 끊임없이 되뇌게 됐다. 출가자와 재가자 그 누구도 삶의 마지막을 피해갈 수 없고 언제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 삶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간절하지만 그 사라짐 앞에서는 어떤 힘조차 쓸 수 없다. 그렇기에 살아있다는 것을 언제나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안에서 인연된 이들과 살아있음을 공존하며 함께 해야 한다. 어쩌면 수술대 앞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어서 사라진다는 것보다 지금을 살 수 없고 인연된 이들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었을지 모른다.

해인사 법보전에는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今生死卽是)'라는 주련이 있다. "깨달음의 도량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는 가르침이다. 오늘을 사는 것이 수행이고, 그 산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깨달음일 것이다. 우리는 오늘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살지만, 이 하루는 언제나 그 어떤 날보다 간절하고 소중하게 느껴질 하루일 것이다.

社 說

연화원 창립 20돌에 부쳐

장애인전법 중심도량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연화원은 1990년 출간된 일반 수화집에 수록된 불교 수형이 3~4개뿐임을 확인한 해성 스님(연화원 대표이사)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시작됐다. 1993년 2월, 서울 석촌동(당시 포이동)에 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도량을 꾸렸고, 2003년 법인으로 거듭났다.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도 연화원은 장애인 전법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다.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 〈자비의 수화교실〉(1999)을 발간했고 이는 11년 후인 2010년, 1127개의 수형을 담은 국립국어원 편찬 〈불교 표준 수화집〉 출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법인 설립 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발굴했다. 〈금강경〉 〈법화경〉 등 다양한 경전을 점자로 제작해 보급하는 데도 앞장섰다. 들을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수화교재를, 볼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서는 점자 경전과 음성녹음CD를 편찬·제작했다.

최근에는 종단본 〈불교성전〉 점자 제작에 한창이라고 한다. 최근 3권이 마무리됐으며, 앞으로 7권까지 출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연화원은 장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문화복합 종합복지관 개관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

1층은 카페 겸 장애인 생산용품 판매점, 2~3층은 지체·시청각 장애인 전용 공간, 4층은 의료시설, 5층은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모시고 싶다는 게 해성 스님의 꿈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수익창출, 문화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 언젠간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해성 스님의 발원이 하루 속히 원만성취되길 바란다.

봉녕사 여성 출가학교 기대된다

수원 봉녕사가 내년 1월 21일부터 2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제1기 여성출가학교'를 연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한 달간 봉녕사에 머물며 한국 전통 승가의 수행과 삶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차명상·요가·사찰음식 특강·화성행궁 산행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된 것도 눈길을 끈다.

봉녕사는 스스로 삶을 점검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출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출가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봉녕사의 이 같은 시도는 한국불교가 맞이한 '출가 절벽'에 기인한다. 1990년대만 해도 한 해 4~500여 명에 달했던 조계종 출가자는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2008년 200명대에 들어섰다. 2017년에는 한 해 출가자 150명 선이 무너졌고 이후부터는 100명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61명에 그치면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전반적 출가자 감소에 비구니 출가자도 급감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여성출가학교'는 기대할 만하다. 2004년 문을 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도 일반인이 삭발염의하고 행자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불교계 안팎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단기출가학교 수료생 중 10%는 실제로 출가수행자가 돼 출가문화 진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현재 65기까지 배출됐다.

출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고, 출가 문호를 넓히기 위한 시도는 많을수록 좋다. 봉녕사의 새로운 시도가 한국불교 출가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편집인 : 박재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㉑ 드라마 '악귀'

번뇌가 악귀를 불렀다

SBS 드라마 '악귀'는 대본의 완성도면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은희 작가가 대본을 썼다.

'악귀'는 악귀에 씐 구산영(김태리)과 악귀를 볼 수 있는 민속학자 염해상(오정세)이 악귀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파헤쳐가는 한국형 오컬트 미스터리 드라마다.

염해상은 구산영의 아버지에게 씌었던 악귀가 딸인 구산영에게 옮겨간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애초 악귀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염해상의 할머니인 나병희(김해숙)가 악귀를 만들었다. 1958년 나병희는 남편 염승옥과 함께 가난한 집안의 자매인 이목단과 이향이를 살인 교사했다. 목단과 향이를 직접 살해한 것은 최만월이라는 무당이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는 집안에 악귀인 태자귀가 씌게 되면 대대로 부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악귀의 마력에 힘입어 중현상사는 중현캐피털로 거듭나면서 사세가 커지지만, 악귀의 저주도 3대까지 계승되어서 장자들을 사지(死地)로 내몰았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그때 회사는 기로에 있었어. 우리가 아니었다면 네가 이런 사치를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아."

나병희가 손자인 염해상을 벌레 보듯이 하면서 내뱉는 대사이다. '악귀'는 오컬트 드라마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은 자본가의 탐욕을 비판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 속 염씨 가문은 목단과 향이를 제물로 삼아서 일어선 탐욕의 가문이다. 하지만 불길처럼 치솟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염씨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나병희는 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남편과 아들의 죽음까지도 감내한다. 악귀와 거래한 나병희의 모습은 메피스토의 유혹에 넘어간 파우스트와 다르지 않다. 나병희가 악귀와 손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삼독번뇌(三毒煩惱), 즉,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痴)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드라마 속 향이가 악귀가 된 이유 역시 삼독번뇌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삼독번뇌는 삼계의 모든 번뇌를 포섭한다. 번뇌가 중생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 마치 독사의 독과 같아서 삼독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법화경〉에 이르길 "마음에는 세 가지 때가 있다. 탐하여 구하는 욕심,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진심, 그리고 미련하여 어리석은 마음이 그것이다. 이것이 모든 슬픔과 근심의 근본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탐, 진, 치를 멸한 사람은 가장 정확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분노가 일지 않는 고요한 마음에서, 어리석음이 걷힌 지혜의 눈으로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드라마 속 염씨 가문이 악귀를 만든 이유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염씨 가문은 악귀의 노예가 되어서 대대로 과보를 받아야 했다. 악귀 들렸다가 본래의 평상심을 되찾은 구산영의 모습은 "삼독의 불이 모두 꺼져버리면 해탈 열반에 이른다"는 〈아함경〉의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끝〉

〈소설가〉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그레이블랙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87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